

Architects
프랭크 게리 (Frank Gehry)
피터 마리노 (Peter Marino)



LOUIS VUITTON MAISON SEOUL



루이 비통,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픈

2019년 10월 30일, 서울

루이 비통이 10월 31일 강남구 청담동에 '루이 비통 메종 서울(Louis Vuitton Maison Seoul)'을 오픈한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은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외관을 설계하고 건축가 피터 마리노(Peter Marino)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했다.

프랭크 게리의 작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곡선 유리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건축물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프랭크 게리의 작품으로, 게리가 설계한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의 형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프랭크 게리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과 함께 한국의 역사가 담긴 18세기 건축물인 수원화성, 흰 도포 자락을 너울거려 학의 모습을 형상화한 전통 동래학춤의 우아한 움직임에서 받은 영감을 접목해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디자인에 담아냈다.

프랭크 게리는 "약 25년 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감명 받았던 점은 건축물과 자연 경관의 조화로운 풍경이었다. 종묘에 들어섰을 때 받았던 강렬한 인상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한국 문화의 전통적 가치에서 영감을 받아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을 디자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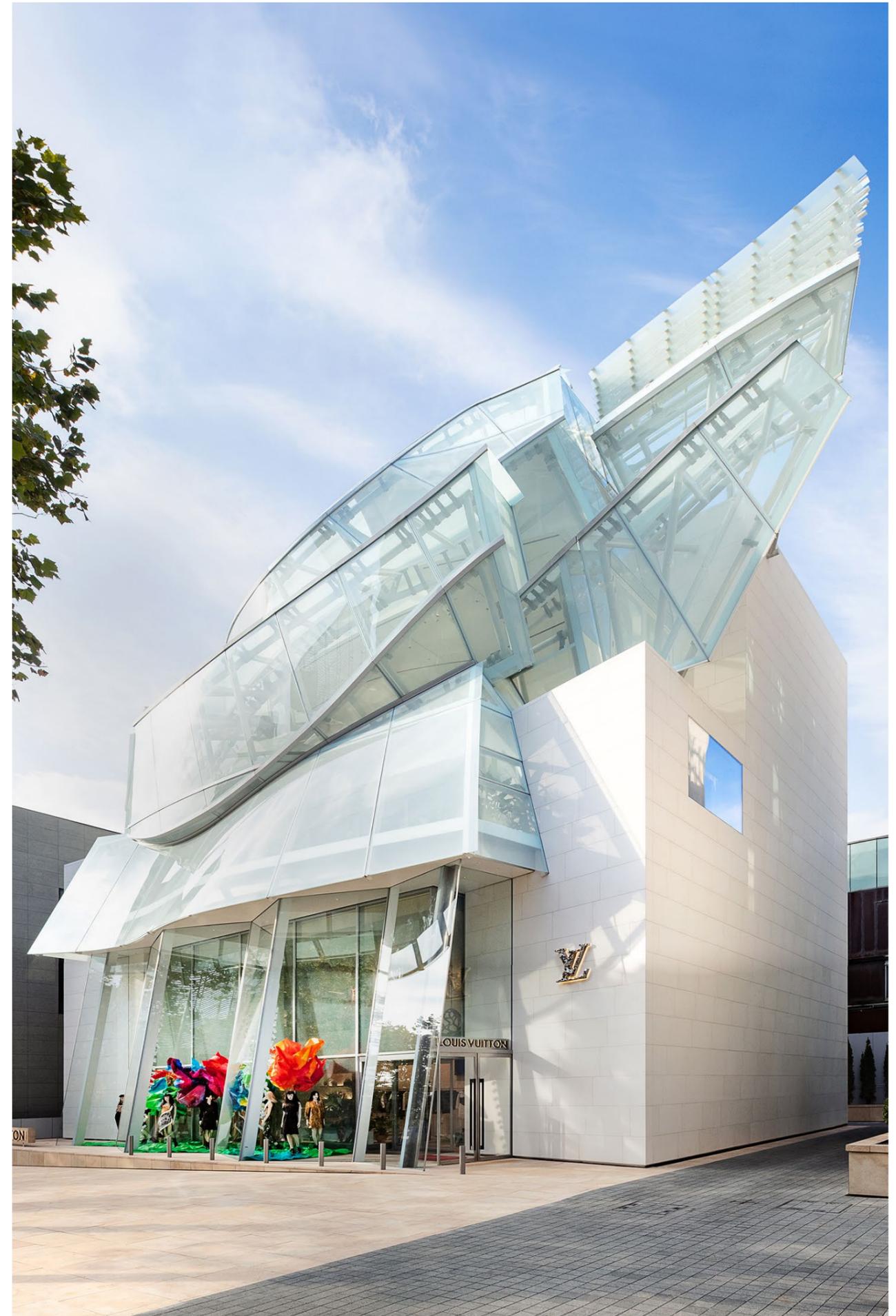
건축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피터 마리노는 12미터 높이의 층고가 돋보이는 입구부터 아늑한 라운지에 이르기까지 루이 비통 메종 서울 각 층의 공간마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대조적인 볼륨감을 입혔다. 피터 마리노는 "게리의 건물 외관에서 느낄 수 있는 넘실대는 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건축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미시언(Miesian)* 방식으로 설계했다"며,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스톤 소재는 외부에서부터 흐르듯이 이어지고, 거대한 사각형의 역동성은 건축물의 바로크 양식 유리 창문과 뚜렷하게 대비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의 내부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하우스의 다채로운 컬렉션을 고루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은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을 위한 공간으로 남성 테일러링 제품을 포함한 의류, 가죽 제품, 슈즈, 여행용품 및 서적을 선보인다.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1층과 2층 공간은 의류, 가죽 제품, 액세서리, 향수와 B 블라썸(B Blossom)을 포함한 파인 주얼리 (Fine Jewellery) 및 워치 컬렉션이 자리하고 있다. 2012년 처음으로 선보인 오브제 노마드 (Objets Nomades) 컬렉션 역시 국내 최초로 상설 전시돼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과 어우러지며 메종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여성 의류와 슈즈에 초점을 두고 아늑하게 꾸며진 2층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3층에 들어서면 개개인의 관심 분야와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쇼핑 경험과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살롱 공간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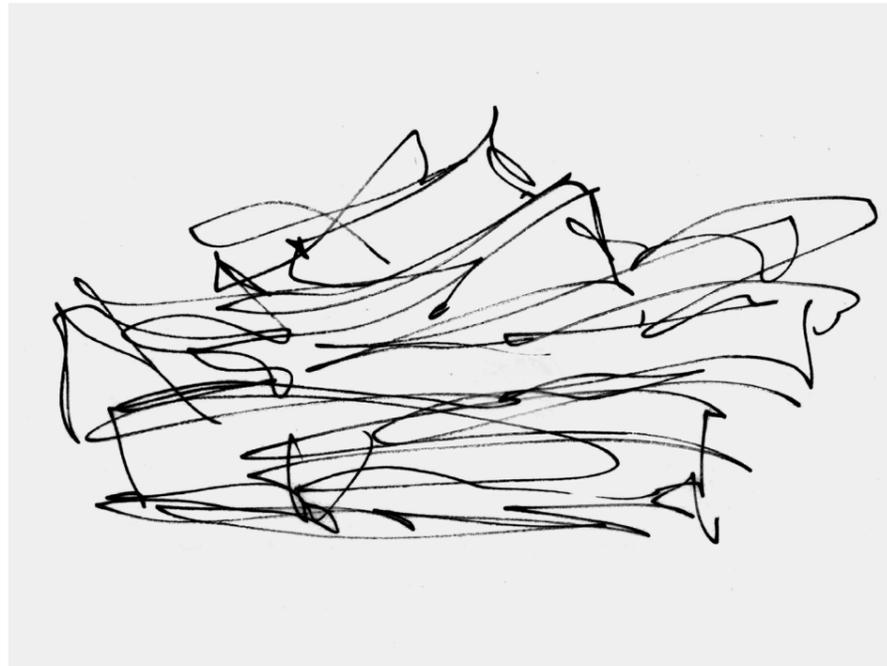
하우스의 전 카테고리를 고루 아우르는 피터 마리노 디자인의 인테리어와 더불어 프랭크 게리 특유의 곡선 유리창 너머로 자리한 4층에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Espace Louis Vuitton Seoul) 전시 공간을 개관한다. 예술계와 루이 비통의 오랜 협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소장품 중 특별히 선별된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대표 조각 작품 8점을 루이 비통 에스파스 서울에서 전시한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픈은 루이 비통과 한국 문화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루이 비통은 지난 1991년 한국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2000년 청담동에 국내 최초의 글로벌 매장을 오픈했다.

*미시안(Miesian): 전통적인 고전주의 미학과 근대 산업 소재를 영민하게 통합하고, 유리와 철강 소재를 주로 활용한 독일 출신의 20세기 대표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건축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거나 디자인한 건축물을 일컫는 용어.



왼쪽 페이지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시적인 구조
(A Poetic Structure)**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은 프랭크 게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곡선형 유리를 주재료로 삼은 특수 제작 판넬 각각을 맞춤형 메탈 격자에 부착하여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그재그 형태의 입구와 쇼윈도를 시작으로 테라스까지 건물의 구조 전체를 덮고 있는 유리 와 상부의 일렁이는 루버 형식(louvered)의 유리 판넬들이 어우러져 구름 위로 떠 오르는 듯하다. 하얀 석조로 이뤄진 건물 벽과 기본 구조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한층 더 강조한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국내 첫 건축물인 루이 비통 메종 오픈을 기념하여 그가 고안한 스페셜 쇼윈도 또한 선보인다. 다채로운 컬러감이 돋보이는 각각의 나무 형태 종잇조각 조형물은 마치 사람의 손으로 구겨진 듯한 한 장의 종이를 연상시킨다. 이 나무들은 화려한 색감의 루이 비통 레디-투-웨어 컬렉션과 조우하여 대조를 이룬다.



왼쪽 페이지
프랭크 게리가 그린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리지널 스케치

위
루이 비통 메종 서울
3D 건축 모형



볼륨과 대비 (Volumes and Contrasts)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전층을 연결하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계단이 공간에 개방감을 더한다. 차분하고 환한 분위기의 지하 1층은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을 위한 공간으로 테일러링 제품을 포함한 의류, 가죽 제품, 슈즈, 여행용품 및 서적을 선보인다. 유리 정문 안으로 펼쳐지는 1, 2층 공간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이어지며,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 의류, 가죽 제품, 액세서리, 향수와 더불어 B 블라썸(B Blossom)을 포함한 파인 주얼리(Fine Jewellery) 및 워치 컬렉션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 중앙 아트리움 주변을 둘러싼 아늑한 분위기의 2층 공간을 거쳐 3층에 들어서면 개인의 관심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쇼핑 경험과 예약제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프라이빗 살롱 공간이 펼쳐진다.



왼쪽 페이지, 왼쪽
아틀리에 오이의
스파이럴 램프
(Spiral Lamp)

왼쪽 페이지, 오른쪽
로우 에지스의
콘서티나 셰이드 조명
(Concertina Shade)

아래
페르난도 & 움베르토
캄파나 형제의
봄보카 소파(Bomboca Sofa)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Louis Vuitton Objets Nomades)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는 하우스의 철학인 여행 예술을 재해석한 독창적이며 우아한 오브제 컬렉션이다. 2012년 첫선을 보인 이래 아틀리에 오이(Atelier Oi),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안드레 푸(André Fu)를 비롯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13팀의 참여로 매해 꾸준히 확장돼 현재 총 55점에 이르는 컬렉터 아이템으로 거듭났다.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루이 비통의 장인 정신, 혁신적인 공예 기술의 조우가 빚어낸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은 계속 진화하는 여행의 비전에 뿌리를 내린 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디자인을 제시해온 하우스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에서 선보이는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은 드라마틱한 설치 방식이 돋보인다. 로우 에지스(Raw Edges)의 콘서티나 셰이드(Concertina Shade)가 여성 컬렉션의 가죽 제품 위로 빛을 밝혀 주고, 아틀리에 오이의 스파이럴 램프(Spiral Lamp)와 캄파나 형제(Campana Brothers)의 웅장한 코쿰(Cocoon)은 1층에 설치되어 공간에 다채로움을 더해준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내부 인테리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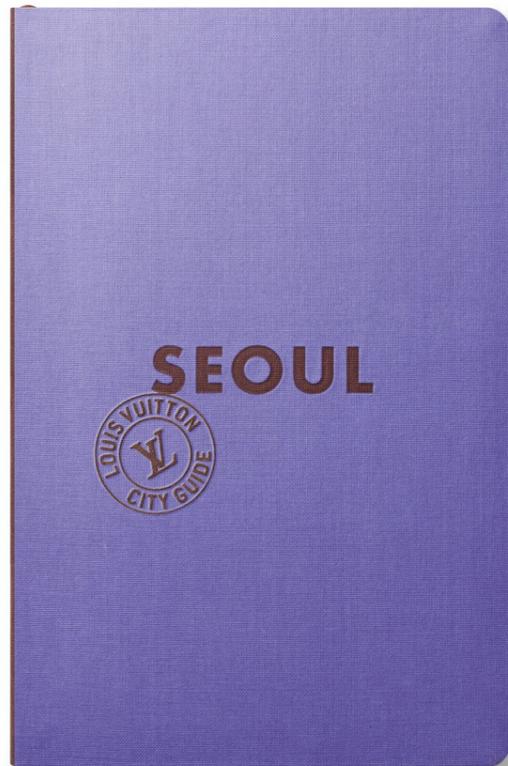
루이 비통과 예술 (Louis Vuitton and the Arts)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내에는 예술 작품과 루이 비통의 역사를 반영하는 아카이브가 곳곳에 설치되어, 특별하고 개인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루이 비통 트렁크는 현대 예술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되며, 메종 인테리어에 전시된 많은 작품과 가구를 큐레이팅한 피터 마리노가 전하는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art is everywhere)”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루이 비통 메종 서울 각층에는 마크 하겐(Mark Hagen), 마르셀로 로 귀다이스(Marcello Lo Giudice), 브랜든 스미스(Brendan Smith), 루이지 매놀피(Luigi Mainolfi), 마틴 클라인(Martin Kline), 하모니 해몬드(Harmony Hammond), 베르나르 오베르탱(Bernard Aubertin), 안젤름 라일(Anselm Reyle)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 작가에게 의뢰해 제작한 화려한 색감의 예술 작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다.

매장 곳곳에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 외에도 아틀리에 장인이 메종 내 상주하게 되어, 루이 비통의 가죽 제품과 하드사이드 러기지 제품에 이니셜을 새기거나 특별한 수작업 페인팅 서비스 등의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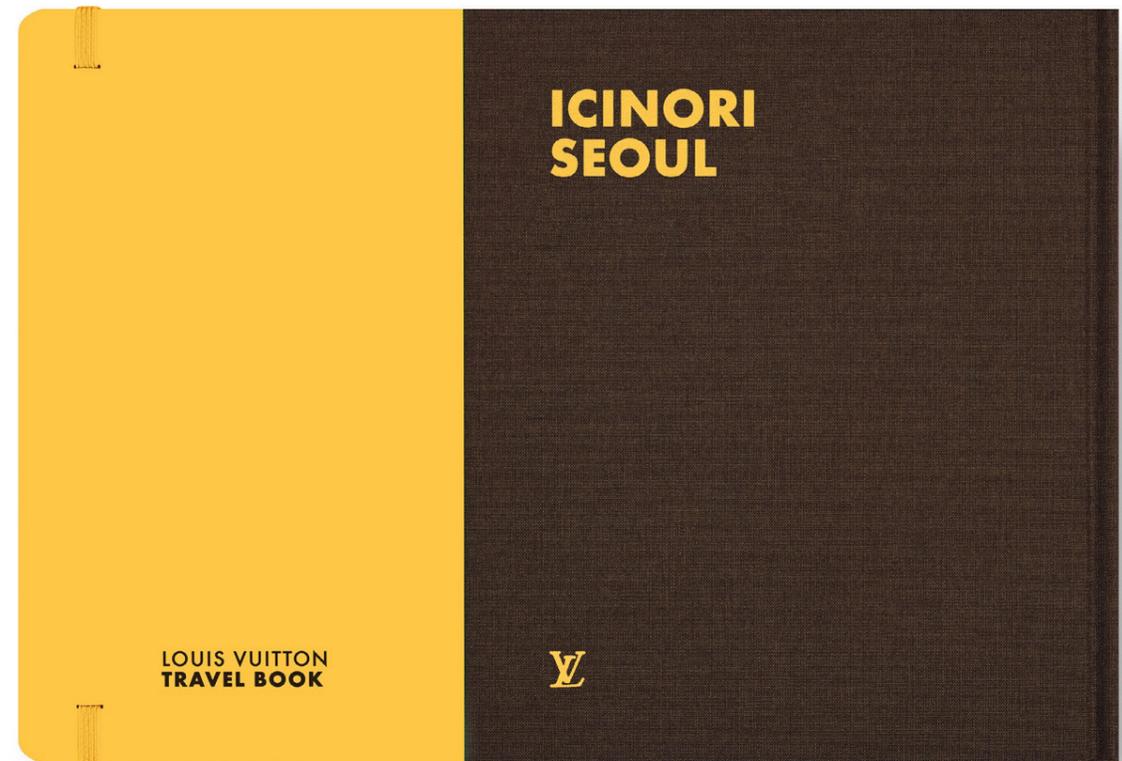




루이 비통과 서적 (Louis Vuitton an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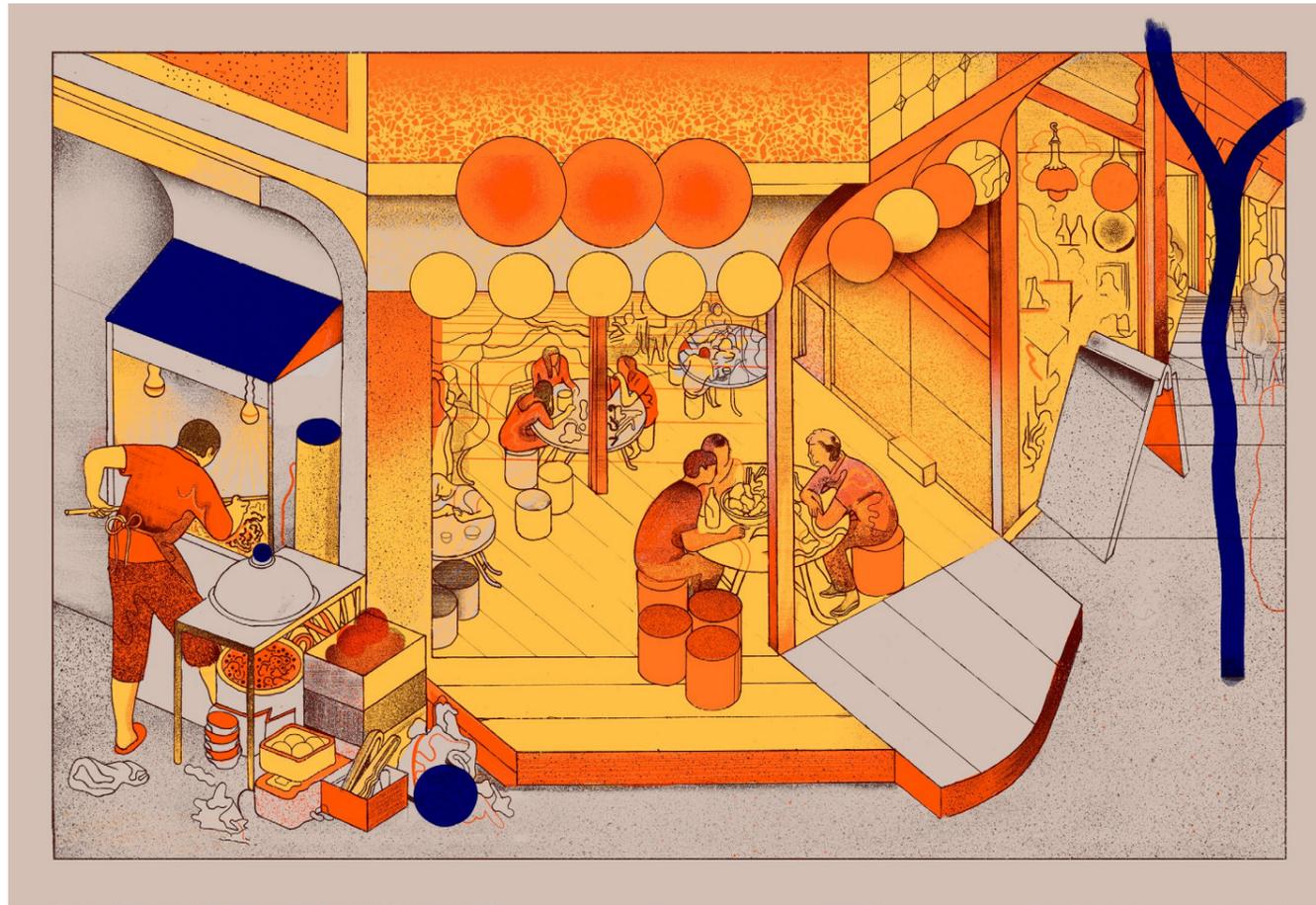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Louis Vuitton City Guides)는 모스크바에서 방콕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파리를 거쳐, 이내 다시 서울로 떠나는 여행으로 방문객을 초대한다. 1998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시티 가이드는 독창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엄선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각 도시만의 개성을 참신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루이 비통의 '여행의 정신'을 구현한다. 2019년에는 프랑스 아티스트 듀오 이시노리(Icinori)의 루이 비통 트래블 북 (Louis Vuitton Travel Book) 서울 편이 출간되면서 서울을 주제로 한 루이 비통 출판물이 더욱 풍성해졌다. 서울의 면면을 담아낸 다채로운 색상의 실험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자로서 하여금 서울 거리를 누비며 춤을 추고, 먹거리를 즐기도록 제안하고 있다.

루이 비통은 서울의 메종 오픈을 기념해, 구글(Google)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개념 검색 서비스인 구글 렌즈(Google Lens)를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서울 편에 접목시킨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는 서적·문학 분야에 구글 렌즈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스마트폰의 구글 렌즈로 만나볼 수 있는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듀오 아티스트 이시노리가 그린 도시의 모습이 더욱 실감 나게 펼쳐지며, 새로운 방식의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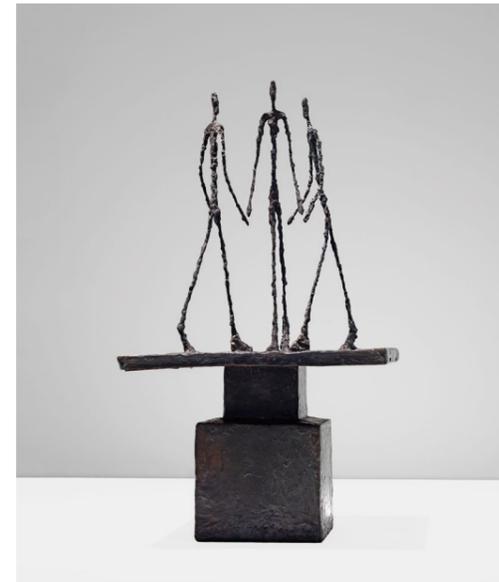
왼쪽 페이지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
서울 편

위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서울 편 - 이시노리(Icinori)



아티스트 듀오 이시노리가
그린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서울 편 일러스트레이션 모음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Espace Louis Vuitton Seoul)

루이 비통은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Espace Louis Vuitton Seoul)의 개관을 기념하여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재단 소장 컬렉션 미공개 작품을 선보이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전시 프로젝트 '미술관 밖 너머 (Hors-les-murs)'의 일환으로, 에스파스 루이 비통 파리(2006), 도쿄(2011), 베네치아(2013), 뮌헨(2014), 베이징(2017)에 이어 새롭게 개관하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진행된다.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개관전에서는 <Homme qui chavire [쓰러지는 남자] (1950)>와 <Grande Femme II [키가 큰 여인 II] (1960)>를 비롯한 자코메티(Giacometti)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8점이 공개된다.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들은 위대한 스위스 조각가의 재능에 보내는 찬사이다.

왼쪽 페이지
알베르토 자코메티,
Grande Femme II
[키가 큰 여인 II]

위
알베르토 자코메티,
Trois hommes qui marchent
[걸어가는 세 남자]

루이 비통과 한국 (Louis Vuitton and Korea)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오픈은 루이 비통과 한국 문화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루이 비통은 에스파스 루이 비통 파리에서 한국 작가 작품 전시를 소개한 바 있으며, 서울은 루이 비통의 주요 행사 행선지로 자리매김하였다. 2017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루이 비통의 유산과 역사를 기리는 대표 전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에서는 <예술적 영감의 나라, 한국> 섹션을 통해 루이 비통과 한국 간 유대 관계를 조명한 바 있다.

매장 정보

루이 비통 메종 서울 &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54

메종 운영 시간: 월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 일요일 오후 12시 - 오후 8시

에스파스 운영 시간: 월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 일요일 오후 12시 - 오후 7시

휴무: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전화번호: 02-3432-1854

루이 비통

루이 비통은 1854년 이래 항상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며 혁신과 스타일을 결합한 고유한 디자인들을 전 세계에 소개해왔다. 루이 비통 메종은 우아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여행 가방, 핸드백, 액세서리를 통해 진정한 '여행 예술(Art of travel)'을 구현해 낸 설립자 루이 비통의 정신을 오늘날까지 충실히 계승해오고 있다. 루이 비통의 역사는 대담함의 연속이다. 건축가, 아티스트, 디자이너와 협업함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으며, 의류, 슈즈, 액세서리, 시계, 보석, 문구류에까지 전문 분야를 확장해왔다. 이렇게 탄생한 제품들은 모두 루이 비통의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반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louisvuitton.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